

노동자들 위해 핸들 잡고 책 만드는 '나는 또라이'



“그 책을 보면서 나도 글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만 굴뚝이었다.(중략) 열두 살 때부터 노동을 했던 나는 분명한 까닭도 없이 ‘지식인’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아무리 ‘노동자 글쓰기 모임’이지만 작은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먹물들일 텐데 어떻게 무식한 내가 거기 나갈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다.”

월간 <작은책> 2003년 10월호에 실린 안전모 씨(46)의 ‘또라이’라는 글의 일부다. 그는 현재 두 개의 직함을 갖고 있다. 하나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915-1번(동해운수)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운전사이며, 또 하나는 일하는 사람들의 잡지 <작은책>의 편집장이다. 그는 어느 잡지 편집장과는 다르게 노동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안씨는 홍제동, 연희동 등을 떠돌며 피난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

다. 워낙 가난했던 탓에 막내 여동생을 제외한 5남 1녀의 남매가 모두 일찍부터 노동현장에 뛰어들었고 안씨 역시 신문배달, 장공, 형틀공, 환경회사 소독차 운전 등 안 해본 일 없이 살아왔다.

“책과 글을 좋아하긴 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
다. 1985년부터 버스운전을 시작했는데 그 무렵 홍제동 ‘주민독서실’을 알게 됐어요. 거기서 <쿠바혁명과 카스트로>라는 만화책을 봤고 그것을 통해 내가 알던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됐죠. 그걸 계기로 <태백산맥>, <노동의 새벽> 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홍제동 ‘주민독서실’이 세상을 바라보는 빛이었다면 1995년에 알게 된 <작은책>은 안씨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심어 줬다. 일간지 <한겨레>에 게재된 ‘일하는 사람들의 글모음, 1년 구독료 1만 원’이라는 광고를 통해 <작은책>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노동자 글쓰기 모임’에 나갔다. 버스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노동자로서의 억울함이나 노동현장의 문제들을 글로 써나간 것은 이때부터다.

“일하다가 보면 근로조건 때문에 열받는 날이 하루이틀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기본급에서 이틀치를 빼고 임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일하던 버스가 다른 회사에 팔린다고 노동조합이 나서서 사직서를 받는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부당한 게 있으면 늘 나서서 투쟁을 합니다. 동해운수에 취업한 후에도 여전히 그 투쟁을 계속하고 있죠.”

그는 아내와 아들을 생각해 이번만큼은 “참자”고 하다가도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고용주를 만나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들을 글로 써나갔다. 고양신문 편집



위원, 버스일터 편집위원, 어린이신문 굴렁쇠 필진으로 있으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나갔다. 그리고 오후근무일 경우 오전 시간을 반납하고 월차, 정기휴가를 반납하고 <작은책> 편집을 도왔다.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써야 하는 글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가슴으로 삶과 일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글이 실렸었는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박영숙 씨 글도 재미있고, 강원도 양양에 사는 이옥남 할머니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현재 안씨와 함께 <작은책>을 만들어나가는 편집부원들은 발행인 송병섭 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다. 안씨는 100호까지 내는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편집부원들이 봉사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해준 덕분에 책이 꾸준히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글을 ‘알게 모르게 사람을 쇠뇌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작은책>의 방향 역시 “노동자가 글을 써서 이품과 절망을 모르는 지식인들을 쇠뇌시키자”는 데 있다. 결국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누구나 알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안씨에게 “일하시면서 글은 언제 쓰세요?” 라고 묻자 그는 운전을 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메모해 둔다고 대답한다.

“버스운전과 글 쓰는 것의 공통점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스운전을 하면 시간이 잘 가고 지루하지 않아요. 손님을 태우고 길을 달리는데 늘 다니는 같은 길이라도 매일 새롭게 느껴지죠. 사실 지금도 일터에서 월차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문제로 싸

우고 오는 길이거든요. 저보고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게 용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해고되지 않는 한 버스운전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물론 글도 죽을 때까지 쓸 거구요.”

그는 앞으로의 <작은책>이 ‘노동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진보적인 잡지’가 되길 바라고 있다. 삶과 세상을 이야기하되 그것을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현실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어떻게 글을 써요? 라고 말하면 <작은책>은 실패한 책입니다. 기교만 능한 사람이 돼서 잘 쓰는 건 싫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틀린 글이라도 울고 웃으며 살아온 우리네 서민, 노동자의 이야기면 대만족입니다.”

이번호 <작은책>에는 가구점에서 일하면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안씨의 글과 <작은책>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특집으로 실렸다. 그 중 “1995년 <작은책>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다”(서정홍·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곧 병원 노동자가 될 동생에게 작은책을 선물해 주고 싶다”(익명의 독자)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글을 보면 그동안 <작은책>이 고단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이웃이 돼줬는지 실감할 수 있다.

안건모 씨는 이처럼 노동자와 농민, 시민들이 필자가 되는 잡지 하나를 꼭 있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포라이’가 되고 싶다고 미소를 짓는다. 전문적으로 글만 쓰고 살 수도 있을 법하지만 그는 여전히 “글쓰는 일과 버스운전을 그만두는 건 저의 정체성을 버리는 건데 어떻게 버스운전을 그만두니까?”라고 노동자로서 글을 쓰는 것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다시 일터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